



두려움에 살고 있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독교인들 ①

나단 Nathan

은 오픈도어의 사역자로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동쪽에 위치한 카가 반도로(Kaga Bandoro)로 가서 무슬림 셀레카 종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나단은 위험하지만 국내 실향민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카가 반도로(Kaga Bandoro)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엔군의 비행기를 이용하면, 1만 8천 명이 넘는 실의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다. 카가 반도로(Kaga Bandoro)에 도착하니 열 명이 좀 넘는 사람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이 나단을 맞아주며 몇 개의 막대로 세워지고, 쌀 자루와 같은 음식 포대로 햇빛을 막은 지붕이 있는 천막 안으로 안내해주었다. 그곳은 교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그 안에는 다른 교회에서 모인 60명 정도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노래

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해주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은 셀레카 군인들(이슬람계 반군집단)에 의해 통제 받고 있는 기독교 국내 실향민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들이 거하는 거처의 지붕은 그저 비와 햇빛 만을 막아줄 뿐 사생활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리고 배고픈 중에도 적은 음식을 따로 분리하여, 잠들기 전에 끓은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형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을은 본인들 집 주변에 작은 공간이 따로 있어서, 농작물도 키우고, 가축도 키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하기에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가사일을 가르치고,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족을 부양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는 이러한 공간과 개인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지붕이 태양을 가려준다



카가 반도로(Kaga Bandoro)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살해당하고, 집과 교회가 불태워지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국내 실향민 캠프까지 파괴되었다. 그들은 모든 집들을 파괴하고, 집 안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위협하였다. 그러면서 2013년까지 4천명 정도 살던 이곳이 지난 10월 12일에는 1만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다.

고 하지만 사방 6미터인 공간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부모들은 이러한 곳에서 가정생활을 지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계속되는 캠프생활은 가정생활과 사회구조를 붕괴시키는 큰 요인이다. 아버지들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윤락가를 들락거리며,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권 밖으로 곁돌게 된다. 하지만 100개 정도가 넘는 벧짚으로 엮은 헛간 구역에 모인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잘 갖춰진 조직을 볼 수 있었다. 술이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체용품들은 없었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곳은 캠프 안에 임시로 세워진 교회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카가 반도로(Kaga Bandoro)에서는 유엔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밖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의 이유를 간단히 명명하기는 어렵다. 무슬림 전사들을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부족에 속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알라가 아닌 예수에게 기도해서 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다 대답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의 소유물들은 파괴를 당한다. 그래서 캠프 안

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셀레카 군에 의해 통솔 당하고 있는 이 지역 기독교인들의 삶은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압박감에 둘러 쌓여 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캠프가 아닌 그들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조용하게 살며, 자신들 스스로와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극도로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셀레카의 도둑들은 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려고 들어왔는데, 경비원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총을 쏘아 죽였으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술판을 벌였다. 카가 반도로(Kaga Bandoro)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살해당하고, 집과 교회가 불태워지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국내 실향민 캠프까지 파괴되었다. 그들은 모든 집들을 파괴하고, 집 안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위협하였다. 그러면서 2013년까지 4천명 정도 살던 이곳이 지난 10월 12일에는 1만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다.

